

미래는 가난한 자의 것

— 누가 6 : 20—26 —

I

지금 :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다.

지금 :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
다. 받을 위안을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역설이 아닌
가? 오늘의 社會構造에서는 富強
國家, 民族이나 個人은 선망의 대
상이요 가난한 民族이나 個人은 멸
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소위 後進國
들은 經濟成長을 위해 안간힘을 기
우리고 있으며 個人들은 빈곤에서의
脫出만이 아니라 보다 더 잘 살기 위
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이 時代의 正義를 위한다는 사람
들도 그 最大의 목표를 가난에서의 해
방에 두고 있다.' 보다 더 잘 살자!
보다 더 잘 살게 하자! 이러한 노
력이나 주장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
람은 없는성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한

것인가! 이것은 니—체의 말대로
노예의 도덕인가? 가난한 자에게 불
평없이 자기가 처한 상태를 감수하
라는 아편인가?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부요한 자
의 禍를 선언한다. 이것은 부요한자
들의 편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마하는
따위의 말씀은 아니다. 오늘의 社會
構造 안에서 資本主義와 결탁한 기독
교는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른다. 그
러나 이 말씀은 부요한 자들이 지배
하는 사회의 종결을 선언한다. 그러
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뜻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가난한자
와 부요한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
는가? 복이란 무엇인가? 그가 약
속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II

이 말씀은 마태에도 있다. (5:3—)
그러나 누가의 것과는 약간 다르다.
마태는 가난한 자란 어떤것인지를 설
명한다. 가난한 자란 곧 마음에 있어
서(τω πνευματι)가난한 자다. 즉

가난을 정신화 했다. 따라서 굶주린 자란 배가 고플어서가 아니라 義에 굶주린 자라고 한다. 우는 자란 바로 이 세상의 꼴을 걱정해서 우는 자다. 그것은 그가 온유하고 자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 때문에 온다. 그래서 平和운동을 한다. 이것이 예수의 본 뜻인가? 정말 가난이란 정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인가?

서구 기독교의 正統派에서는 마태를 그렇게 이해하므로 그런 입장을 취했다. 즉 가난을 정신화했다. 그러므로 物質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자들에게 인내와 굴종을 美德으로 설교했다. 그러므로 物質적인 貧富의 差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의 모순에 눈을 감아버렸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 아무런 責任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채널」을 설교했으며 이 社會構造를 조종하는 富유층의 特權에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은혜인 것처럼 설교했다. 따라서 기독교는 資本主義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것은 결국 오늘의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二元化의 윤리설교다. 이것이 옳은가?

그러나 누가에는 「마음에」라는 단어가 없다. 그저 「가난한 자들」이다. 문자 그대로 의식적인 규명을 한다면

오히려 物質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굶주린 자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다. 우는 자란 물질적 빈곤에서 오는 슬픔 때문이며, 이 사회에서 멸시 받고 모욕을 당한 物質적으로 가난함으로 사회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기독교 안에서 개혁적 진취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의 편에 섰다. 가난한 자란 바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이다. 物質적인 궁핍에서 오는 굶주림, 그것에서 온 소외자로서의 울음, 그로 인한 멸시와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축복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이해는 사회주의 운동이 휘몰아 올 때 더욱 구체화 됐다. 따라서 부요한 자란 물질적인 부부조아들이다. 저들은 物質의 富에서 웃고, 그것으로 구축된 사회구조에서의 지위와 명성에서 기뻐하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안일하는 자다.

정말 예수의 뜻은 그런 것이었을까? 이러한 이해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은 사람의 삶은 物質主義적인 측면에서 平面的으로, 一元化한 게 아닌가? 이런 이해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物質의 균등분배를 사회 정의의 至上과제라고 생각하는 社會主義의 先驅로 규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해들은 모두 옳지 않다. 누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장차 物質的으로 부요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까닭은 富요할 때만 복이 될 터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物質的으로 充足한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요한 자는 왜 화가 있다고 했나? 富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면 지금 가난한 자가 복 받는 순간 곧 저주의 대상이 될게 아닌가? 그러면 이 말씀은 소유에 依해 형성된 계급투쟁을 선동하므로 한번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위치를 바꾸워보자는 혁명을 종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물질적인 재분배를 위한 사회변혁을 시사한 예수의 말씀은 없다. 물론 부자에서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워 주라고 한 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조건으로 하거나 일반화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物質的인 욕심이 사람의 자기喪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드러냈다. 하나님과 mammon(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마태 6.24)는 말씀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음의 주목할 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형제에게 유산을 分配해 주도록 도와달라는 請에 대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욕

심을 물리치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재산이 그의 목숨을 늘여 주지는 못하리라(누가 12:14~15).」

그는 재산 分配를 그의 활동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한다. 더욱이 재산의 증대가 삶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唯物的 社會主義者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物質的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게 문제 아니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고 이해할 수도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태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우리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의 富者를 말한다. 물질적인 가난을 관심했기에 그 단순한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으며, 부자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워 주라고 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으로 인정 됐다(최후 심판 비유). 예수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준 일이 없다.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리며 우는 자에게 마음으로 가난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唯心王國일 것이다.

精神의 가난과 物質의 가난을 나

누는 것은 성서적 사고는 아니다. 성서의 전통은 精神과 肉體의 구분을 모른다. 唯心, 唯物 따위의 분류는 성서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성서는 전체로써의 人間을 알 따름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한 것이지, 그것이 物質的, 또는 精神的 이냐 따위의 구분은 非 성서적인 사고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구분은 그 存在自體로써 규정된다. 그런데 그것은 社會學的인 이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새세계(하나님의 나라)앞에서 비로소 그 진상이 드러난다.

Ⅲ

이 축복과 저주는 「지금」과 「장차」라는 두 세계의 긴장 속에서 내려진 약속과 선언이다. 지금 가난한 자, 지금 굶주린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박해를 받는 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들은 배부르고 웃고 기뻐하게 될 것을 약속했다. 지금 배부른 자, 지금 기뻐 웃는 자는 장차 굶주리고 슬퍼 울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까닭은 그들은 지금 이미 받을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장차」는 어떤 현실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문자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王

國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主權이 완전히 支配할 未來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아무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그 나라 자체의 靑寫眞을 그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참여할 수 있고 부요한자에게 닫힌 세계다. 이것은 「지금」의 人間의 진상을 폭로함과 同時에 人間이 어떻게 存在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다.

그 나라는 영 또는 정신의 세계라는 규정은 구약의 예언자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볼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나라는 物質的으로 점진 진화되어 성취될 현실도 아니다. 그것은 소위 복지사회는 아니다. 그것은 人間을 전체로써 규제하며, 전체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다. 그 나라는 사람이 자기노력으로 더듬어 올라가므로 到達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고 있는 현실(The Coming)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새로운 可能性이다. 그것은 人間의 未來이기 전에 하나님의 미래(Zukunft)다.

사람은 本來 희망에 依해서 현재를 산다. 그러나 희망에는 두 가지 뚜렷한 差異가 있다. 하나는 지금보다 나은 未來에의 동경이다. 그런 동경에는 發展이라는 생각이 中心을 이룬다. 發展은 이미 주어진 것의 점

진적인 성취를 뜻한다. 이미 內包되어 있는 가능성이 실현완성되는 그때, 그 상태가 궁극적인 희망이다. 이러한 意味의 희망은 순수한 새 미래는 아니다.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낸 미래에의 희망이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의 연장밖에 될 것이 없다. 까닭은 그것은 여전히 꼭 같은 價値觀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희망은 전혀 새로운 未來에의 동경이다. 전혀 새로운 未來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상상이 허락되지 않는다.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벌써 새로운 未來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에서 사는 사람은 그 未來를 向해 自己를 개방하며 기다리는 길밖에 없으며, 同時에 既存의 어떤 價値나 秩序에도 그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게 한다.

예수가 말하는 오고 있는 그나라란 바로 지금의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未來, 전적으로 새로운 未來, 지금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 올 未來를 말한다. 전적으로 새로운 可能性의 세계가 온다! 이 선포 앞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모습이 폭로된다.

IV

예수의 청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소외자들이

다. 저들 중에는 物質적인 빈곤, 종교 세계와의 차단에서 온 고독, 그 사회 구조 안에 설 자리를 잃은채서 오는 불안에서 그날 그날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에서 가난했다. 저들을 살게하는 것은 희망이다. 저들은 未來에서 현재를 산다. 저들은 그 미래에 自己를 開放하고 있다. 그러나 그 未來는 그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未來를 向해 가난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向해서 동경(희망)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에 설 자리가 없어 굶주리고 떨시와 박해를 받았다. 저들의 가난은 물질만도 정신만도 아니다. 아니 存在的 가난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난함을 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가난을 피하지 않고 그치지들 운명처럼 성실하게 인정하고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주어질 순수한 새 可能性뿐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세리, 창기, 그 시대가 규정한 죄인들이다. 저들이 바로 가난한 자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

이에 反해서 순수 새로운 未來를 필요로 하지않는 부류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自己를 차단했다. 까닭은 저들은 「지금」에서 自己充足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들은

그 社會構造의 中心部에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지위로나 그리고 宗教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을 장악한 지도자들로 포탄상태에 있으며, 그 삶의 보장을 완전 구축했다고 생각한 자들이다. 그래서 순수 새것에 대해서는 차단적이고 「지금」에 대해서 保守的이었다. 까닭은 새것은 지금의 價値, 질서, 거기에서 획득한 보장이 무너지겠기 때문이다. 비록 저들이 未來를 종교적으로 말해도 지금보다 나은 未來, 즉 지금의 특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더해주는 그런 未來다. 저들은 예수에게 반항했다. 까닭은 그가 저들의 이 모든 富를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當時 유대 社會의 主導權을 잡은 종교적 지도군상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부요한 자들이며, 이들은 장차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즉 누가 부자고 가난한 者인가는 오고 있는 미래를 向해 開放의이나 차단적이나에서 폭로된다.

그러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 씀은 무슨 意味가 있는가? 爲先 이 말 씀은 그들의 세계의 方向을 심판한다. 빈곤에서 허덕이는 個人이나 國家에게 이 말 씀은 祝福의 약속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에서의 脫出을 궁극적인 구원의 길처럼 생각하는 한 그들은 이 祝福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이 말 씀은 전혀 무의미하게 들릴 것

이다.

우리나라 같은 後進國에서 늘 近代化라는 말과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것과 일치시킨다. 그 목표는 先進國과의 경제적인 격차를 좁히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이」 「보다 더」의 서구 자본주의의 생활철학을 신조처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화가 있고 부요한 자에게 복이 있다가 참 질리처럼 들리게 된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이」란 욕심을 근간으로 보다 더 많이 가진 소위 先進國에서는 事情이 달라졌다. 저들은 보다 더의 생활 신조로 오늘과 같은 기술공업의 사회를 이루워 놓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위 生産과 잉여라는 현실, 말하자면 너무 풍요한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보다 더 벌기위해, 아니 생산 기제는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생산해내야 하며, 그 生産品을 팔기 위해서 市場을 개척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세계 弱小民族이나 어떤 계층을 흥정의 미끼로 하는 것까지 불사하도록 강요하므로 언제나 세계 平和와 正義를 짓밟는 요인이 된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 人間의 物質的 慾心을 온갖 수단으로 자극한다. 보다 많이, 보다 便利하게 살아야 사람이다. 消費는 美德이라는 선종을 이르켜 消費者를 유혹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경쟁의 풍조에 휩쓸린 人間들은 비록 所得高가 높아져도 그 消費性의 태풍을 앞지르지 못하는 못한다. 그래서 所得의 增大란 數字上의 마술뿐이고, 사실은 生産者들의 商品을 팔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내주고 그 生産品은 계속 廢品으로 내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므로 점점 더 바빠만지고 生活苦는 시지프스神話의 바위처럼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돈을 위한, 돈에 의해 사는 소위 경제동물이 되므로 自己는 대말려만 간다. 그렇다고 세상이 결코 복지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다 더」의 경쟁에서는 언제나 資本家가 獨走할 수 밖에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貧富의 격차는 높아만가고 社會正義는 그 균형을 잃게 된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소위 生態學의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보다 더」의 생활도구인 공장과 기계는 人間의 집인 이 自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부요함에서 배설된 廢物과 汚物들은 사람의 있을 자리를 占領하며, 사람에게서 大氣와 물을 약탈해 간다. 그래서 오히려 科學者들이 人類滅種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가진 者는 보다 더의 軌道에서 뛰어나릴 수도 없고 스윘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보다 더」의 역사는 사람을 「빵으로 만」이라

는 순수 동물적 人間으로 휘물았으며, 이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울 위기 앞에 人類를 不安 속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부요한 자들은 받을 위안을 지금의 社會構造에서 享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지금의 社會構造를 끝내 死守하려고 한다. 이런자들은 이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란 爲先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자다. 그는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동경한다. 그러나 그것은 慾心이 아니다. 「보다 더」가 지므로써 거기서 삶의 보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 存在性의 가난을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다 「왜」 사느냐의 대답이 없어 가난하다. 그들도 배가 고르면 빵이 필요하다. 그러나 빵을 구함은 보다 많은 빵을 찾아 거기서 삶의 보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위해서」의 삶을 위해 여전히 가난하다.

西歐의 一部 靑年들은 그들 사회의 物質과 文化의 부요함에서 享有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의 社會構造의 쇠사슬을 끊고 튀겨 나왔다. 그들은 먹기 위해 살 수가 없고 살기 위해 먹는 세계를 그리워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wozu)가난하다. 그들은 自身의 가난함을 알기 때

문에 새것, 새세계, 새 存在를 동정한다. 그들의 이러한 희망에는 어떤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자기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알 뿐이다. 그래서 저들은 未知의 本郷을 찾는다. 저들은 스스로 意識하고 있는지는 별 문제다. 그러나 저들에게 미래의 약속이 있다. 저들은 적어도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는듯이 현재에서 安逸한 종교인 보다는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이제 올 未來에 全存在를 開放한다. 그들의 기다림은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그들은 이 대답을 自己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오늘의 社會

構造를 형성한 價値體系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기에 未來를 기다린다. 그러나 동시에 그 희망 자체가 바로 그 대답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기다림에서 산다. 이 미래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이 時代에 도전한다. 까닭은 이 시대의 社會構造가 거짓된 삶의 보장을 약속하며 絶對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와 도전하는 한 이 세계가 주는 權利에도 전하는 한 이 세계가 주는 權利에서 소외된다.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미래의 축복이 약속됐다. 그들은 未來(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한다.